

2 [고백록]

성 아우구스티노

- 기독교 최초의 정신적 자서전으로 널리 평가되는 성 아우구스티노스의 [고백록]은 불안한 마음이 하느님을 향해 여행하는 스토리이다.
- 당신은 자신의 모습을 취하여 우리를 만들었습니다. 그래서 우리 마음은 당신 안에 기거할 때까지 평화를 얻지 못합니다.
- [고백록]은 그리스도를 향한 정신적 열정과 신앙의 고백을 적어놓은 책이다. 그는 오랫동안 마니교에 심취했다. 마니교는 과학과 천문학을 숭상하면서 인생을 빛의 정신적 세계와 어둠의 물질적 세계사이의 갈등이라고 보는 학파다.
- 그가 구약성경의 문장들을 문자적 의미가 아니라 비유적 의미로 읽을 때 획기적인 전환점이 찾아왔다. 그는 또 성경 속의 어떤 사상은 신앙의 바탕위에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도 깨달았다.
- “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으시라. 대낮에 행동하듯이, 품위 있게 살아갑시다. 흥청대는 술잔치와 만취, 음탕과 방탕, 다툼과 시기 속에 살지 맙시다. 그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십시오. 그리고 욕망을 채우려고 욕신을 돌보는 일을 하지마십시오.”